

어린이 책꽂이



▲대추리아이들= '국화' '노근리 그해 여름' 등 우리 역사에서 작지만 눈여겨보아야 할 사건들을 동화로 발표한 김정희씨의 신작동화다. 평화로운 마을에 살던 평범한 소년에게 닥친 '여명의 황새'를 작전, 미군기지 확장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계절·8천500원>



▲눈코끼리입술=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가지 감각을 주제로 재미있게 노래한 우리나라의 동시들을 한데 모았다. 김중상, 박혜선 씨 등 48명의 동시 57편을 다섯 가지 감각으로 나눠 소개해 어린이들의 오감을 발달시키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더욱 흥미롭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위즈덤북·8천500원>



▲최준현에게 배우는 꿈의 실현= '평범한 나'를 '최고의 나'로 바꾼 인물들의 가치관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 주는 책. SK그룹을 설립한 최준현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을 꺾어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 결국 성공으로 이끌어 내기까지의 과정을 재미있게 담았다. <뜨인돌어린이·9천원>



▲찰스 다윈= '모든 책을 읽어버린 소년 벤저민 프랭클린'의 작가 루스 에수비의 신작. 의학이나 신학 공부보다는 새나 곤충관찰을 좋아했던 어린 시절과 스물 두 살의 나이에 비글호를 타고, 5년 동안 생명의 탄생과 진화의 비밀을 밝히는 탐사 여행을 통해 인생과 역사를 바꾼 다윈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만날 수 있다. <미래아이·9천원>



▲다섯 발 들어져라= 아동문학가 고(故) 권정생(1937~2007) 선생이 남북 어린이들을 위해 남긴 옛이야기를 모은 유작 동화집. 총 5편으로 기획된 첫 중 우선 '다섯 발 들어져라'와 '만식꾼 대감' 두 편을 묶어냈다. 표제작 '다섯 발 들어져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혹부리 영감'의 또 다른 버전이다. <한겨레아이들·8천원>



▲바보 창수 대장 응수= 신발주머니에 집착하는 발달장애아 창수, 맨날 친구들을 괴롭히고 욕하는 싸움대장 응수. 바보 같고 싸움만 하는 이 '문제아'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면서 함께 어울리는 친구가 된다. 어른들의 잦아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썼다. <국민서관·9천원>



▲반대말= 그림만으로 2~8세 어린이들에게 반대말 개념을 알려주는 색다른 그림책으로 회화작가 안운모 씨의 작품. 자세한 설명 없이 흰 울퉁퉁이와 책만 등장하는 지극히 은연한 그림으로만 반대말 열한 쌍의 개념을 한눈에 보여준다. <보림·9천800원>

▲촉구하는 털복숭이= '거짓말 같은 3가지 이야기 여섯 번째 권. 주인공 제이크가 직접 쓰고 그린 재미난 책이다. 이번 권에는 촉구하는 비눗방울, 외톨이 바다 괴물, 소심한 놀이동산 유령 등 거짓말처럼 엉뚱하고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해 한바탕 유쾌하고 즐거운 소동을 벌인다. <사피리·8천원>

법조계 이단아, 사법계를 폭로하다

불멸의 신성 가족

김두식 지음



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조계의 이면을 털어놓은 '불멸의 신성가족'을 냈다. 민간 연구단체인 '희망제작소'가 일반 시민의 생활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펴내는 '우리 시대의 희망찾기' 시리즈 중 하나이다.

책에는 법조계 안팎의 다양한 인물 23명을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단 순히 법조계를 소개하는데 머물지 않고, 이들의 구술 내용을 종합 분석해 사법 현실을 재조명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관사와 검사, 변호사, 법원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법조계 출입기자, 교수, 철학자, 시민단체 간사, 각종 소송 경험자,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결혼을 증언해주는 일명 '마담뽀'까지 다양하다.

책에는 법조계 안팎의 다양한 인물 23명을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단 순히 법조계를 소개하는데 머물지 않고, 이들의 구술 내용을 종합 분석해 사법 현실을 재조명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관사와 검사, 변호사, 법원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법조계 출입기자, 교수, 철학자, 시민단체 간사, 각종 소송 경험자,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결혼을 증언해주는 일명 '마담뽀'까지 다양하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상징 대법원 전경.

한다고 한다. "절대 접대를 받지 않겠다"며 정에 불타던 신입 검사도 점점 접 자기 돈을 내고 골프를 칠 수 없게 된다. 다들 자기 돈을 안 내는데 나만 내겠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참가한 한 검사는 "뭔가 열외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인 관사와 변호가 골프를 치면 관사는 10만원만 내고, 변호사는 30만원을

이라고 털어냈다. 물론 압박을 느낀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청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면담에 응한 전현직 관사를 대부분은 전관예우가 밖에서 보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기 때문에 누구의 청탁을 마구 들어주거나 불공정한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책은 이 밖에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수임료의 30%를 챙기는 일명 '법조 브로커', 결혼시장에서 노골적으로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원하는 사람부터 은근히 '열쇠'를 바라는 사법시험 합격자 등 법조계 안팎의 다양한 모습을 전한다. <창비·1만3천원>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스티븐 킹이 33년간 쓴 판타지

다크 타워

스티븐 킹 지음



세계 독자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스티븐 킹의 판타지 소설 '다크 타워'가 번역 출간됐다. 킹이 작가 데뷔 전부터 구상해 무려 33년이라는 긴 집필과정을 거쳐 2004년 완간한 여작이다.

총 7부작 가운데 1, 2부가 세 권으로 먼저 출간됐고 3부는 여름에 나올 예정이다. '다크 타워'의 기본 설정은 '반지의 제왕'과 '석양의 무법자' 외에도 로버트 브라운의 시 '롤랜드 공자 암흑의 탑에 이르다'에 상당 부분 겹쳐있다.

롤랜드라는 인물이 암흑의 탑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이 시와 마찬가지로 소설도 롤랜드라는 이름을 가진 최후의 총잡이 위기에 처한 암흑의 탑을 찾아가는 여정을 파란만장하게 그려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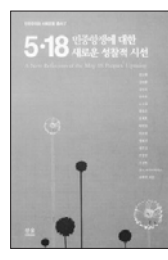
작가는 서문에서 암으로 살아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여든두 살의 할머니와 사형날짜를 기다리는 죄수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겠다'며 결말을 알려줄 것을 종용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마음에 들든 안들든 간에 롤랜드의 이야기는 이제 완결됐다. 부디 즐겁게 읽으시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각 권마다 저자의 해설과 함께 스티븐 킹의 팬 블로그를 운영 중인 번역자 조재형 씨의 해설이 수록됐다. <황금가지·각권 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민중항쟁을 재조명한다

5·18민중항쟁에 대한...

조희연 씨 등 엮음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5·18광주 민중항쟁 29주기를 맞아 5·18 민주화운동을 회상적 보상이나 진상규명과 같은 전통적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여성주의, 탈민중주의 등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한 학술집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을 냈다.

책은 지난해 전남대 5·18 연구소와 함께 열었던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그동안 발표된 총 14편을 골라 실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한 저자들은 "5·18에 대한 담론이 '광주'라는 한정된 공간과 행사라는 고정틀에 갇혀 있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새로운 진로를 설계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보현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는 "생생"이 없는 '기록'은 사라진다"는 논문을 통해 "이른바 '88만원 세대'(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07년 전후 한국의 20대를 지칭)는 대체로 5·18에 대해 큰 관심이 없고 단지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정도의 교과서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철학적 관점에서 본 김강봉 전남대 교수의 응답으로서의 역사·5·18을 생각할"과 아나키스트적 시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본 심성국 부산대 교수의 발표문도 독특하다. <한울아카데미·2만4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壬亂때 관리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풀어쓴 징비록

박준호 지음



조선시대 영의정까지 지낸 류성룡은 청백리의 표상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 비용조차 없어 아는 사람들이 비용 마련을 위해 부고를 보내야 할 정도였다.

대표작 '징비록'은 그가 은퇴하고 말년에 임진왜란을 회고하면서 쓴 책이다.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사로 근무중인 박준호씨가 펴낸 '풀어 쓴 징비록 류성룡의 재구성'은 임진왜란, 징비록, 류성룡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란 속에서도 백성의 뜻을 읽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관리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낸 책이다.

저자는 지난 2007년 시에 선생 서거 400주년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하늘이 내린 재상, 류성룡의 담담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등 류성룡 전문가다.

저자는 '징비록'을 반복해서 읽고 전란의 와중에 류성룡이 걸었던 길을 직접 답사하며 원고를 완성해 나갔다.

민초들을 전란의 참혹함 속에 빠뜨리고 만 데 대한 죄책감을 뼈저리게 느꼈던 책 속의 류성룡은 참혹한 전란 속에서 국정을 총괄하고 지휘해야하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처절한 반성문을 써내려 간다.

그래서 위정자의 반성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동아시아·1만3천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대)223-1140, 5210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지만 골라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보부동산컨설팅
(대)261-8949 헬 011-602-2233
(신수동 543-51(두림타운입구 삼거리))
▶ 판매매매
-광안동 정복동 생선단지 1,941㎡ 매가 2억 4,000만원
-북구 안남동정복동 2차전진 1층주거지(대) 1,280㎡ 매가 1억 8,000만원
-남동구 남동구 구신리 재개발지역 1,686㎡(2차전진) 매가 1억 5,000만원(배우)
-남동구 원신동 원복리 1,835㎡(2차전진) 1층주거지 매가 1억 3,000만원
-남동구 대곡동 신곡리 1,800㎡(국도3호 관라지) 매가 1억 8,000만원
-북구 동서동 신대동 1,400㎡(4차전진) 매가 1억 5,000만원
-성서 배안사 부근 4차전진 주거지 5,107㎡ 1층주거지 매가 2억 2,000만원(신, 신, 신, 신)
-광안동 정복동 2차전진 2,210㎡ 1층주거지 8만 원
▶ 건물매매
-북구 동서동 대지 396㎡ 1,791㎡(1층주거지 8층 세 보) 보증금 2억 4,000만원 매가 4억 4,000만원
-북구 동서동 대지 47㎡ 코너 대지 1,023㎡ 25.473㎡ 세보전진 20㎡ 빌 4,000㎡ 매가 600만원(1층주거지 18억)
-사구 동서동 대지 512㎡ 1,139㎡(1층주거지 3층) 매가 1억 9,000만원 빌 650만원 매가 9억 7,000만원(5억)
-북구 동서동 대지 127㎡ 1,192㎡(3층 3층) 매가 1억 5,000만원(소형도로 x15m 코너)
-북구 동서동 신대동 대지 243.8㎡ 건물 710.5㎡ 세 보증금 1억 4,300만원 매가 7,300만원(용지35㎡ 매가) 1억 9천
▶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남구 주월동 1304㎡ 2396㎡ 1층전진 2~4층 원룸 및 부속 세 보증금 1000만원 빌 7000만원 매가 8억 5,000만원(신)
-북구 신수동 대지 176.2㎡ 2324㎡ 부속 6세대 세 보증금 1억 2,300만원 매가 2020만원 10992,000만원(용지 5,000㎡)
-북구 동서동 신대 동대 332㎡ 1,902㎡ 건물 2층 고시원 빌 85㎡ 1층주거지 1,500㎡ 매가 8억 5,000만원(용지 3억 8,000만원 포함)
▶ 주유소매매
-동구 신수동 대지 667.7㎡ 주유소 상용매매 매가 12억(용지 95,000㎡)
\* 주유소 부지, 시외 주유소 매물 다량 보유 상담 환영
\* 토지, 건물, 원룸 등 다량 보유

국민공인중개사
(공시지가 이하 및 금 때를 증개 전문)
☎ 헬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2억 매 매가 1억 2천 만원
▶ 상업지역 130P 삼각지
공시지가+건물과표 13억 매 매가 7억 5천
▶ 45m도로 접 목욕탕 및 복합상가+주거
복구 대 220p 건 400P
분양가 8억 아파트 1300세대 상가 매 매가 2억 5천
▶ 35m도로 접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직할
공시지가+건물과표 6억 매 매가 3억 5천
▶ 현재 한의원 경영 중 대 130p 건 230p 상업지역
공시지가+건물과표 7억 매 매가 4억 2천
▶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상업지역 땅 약 95p 공시지가 3억 5천 매 매가 2억 4천
▶ 30m 도로 접
강정가 3억 8천 매 매가 2억
▶ 장성 대 270p 건 180p
▶ 1층 점포 6칸 빌도 주택 2층
▶ 2층 사무실
32억 빌딩 임대
▶ 대 200p 건 450p
▶ 대 800p 세차시설 캐시엔 주유기 12대
▶ 매 12억 용지 6억 포함
강정가 45억 매 매가 24억 5천
▶ 빌딩 임대 대지 500p 건 1000p 지하 1층, 지상 5층 전진 중심
파운 주유소 임대
▶ 대 600p 세차시설 캐시엔 주유기 12대
▶ 매 12억 용지 6억 포함
파운, 팔리, 요양원, 별장부지
▶ 9500p 현재 황토방 창고관리실
▶ 주택조경수 식재 딱 4억 5천
▶ 59억 빌딩 대 1000㎡ 건 5500㎡ 보증금 20억
월세 4천 용지 15억 포함
▶ 장성 임야사슴목장, 필장 100000p 4억 7천
공시지가+건물과표 15억
대 300p 건 350p 매매 11억

번영 공인중개사
☎ 062)531-4665
동림2지구동림병원앞
모텔
※수익성 좋은 물건 다량 확보※
▶ 신축모텔(매매, 임대)
매매 10억 ~ 35억 선
(용자안고 3 ~ 20억 투자)
임대 : 보증금 3억 ~ 7억
월 : 800 ~ 2500만원
▶ 무인모텔(매매, 임대)
매매 : 20 ~ 50억
(용자안고 10 ~ 20억 투자)
임대 : 보증금 4 ~ 7억
월 : 1000 ~ 3000만원
▶ 일반모텔(매매, 임대)
매매 : 4억 ~ 30억 원
(용자안고 3 ~ 10억 투자)
임대 : 보증금 1억 ~ 4억
월 100 ~ 1500만원
▶ 대중사우나(매매, 임대)
매매 : 4억 ~ 50억 원
(용자안고 3 ~ 20억 원)
임대 : 보증금 1억 ~ 4억 원
월 200 ~ 1000만원
▶ 고시원(매매)
매매 : 5억 ~ 12억 원
(용자안고 3 ~ 7억 원)
※매매, 매수, 임대, 임차
물건 접수합니다.

경매전문회사
(주)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 ☎ 062)228-6600
전화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인찰가 제시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
잔금 대출입선(낙찰가의 50%~80%)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 해드립니다.